

# 광주 한부모가족 시설 부족...부자시설은 '전무'

(父子)

### 이달 기준 9천359가구...출산·양육·생활 지원 6곳뿐 이용가능인원도 29명·52세대 그쳐...확대 방안 등 필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A(45)씨는 아내와 이혼 후 6살, 초등학교 2명 등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얼마 전 사고로 인해 눈과 귀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당장 일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 6살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기초생활 수급 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A씨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신청을 하려 했으나, 모자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낙담에 빠졌다.

광주지역 내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자(父子) 가족, 이른바 '싱글 대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한 곳도 없이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광주지역 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9천359가구다.

이중 모자가구는 7천411가구, 부자가구는 1천948가구, 조손가구는 899가구

며 청소년 모자가구 64가구, 청소년 부자가구 47가구다.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총 6곳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출산 지원시설 1곳, 양육지원시설 3곳, 생활 지원시설 2곳으로 주거와 생계, 상담 서비스, 돌봄 등을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과 출산 전후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시설이며, 양육지원시설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시설이다. 생활

지원시설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과 학업, 자립을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이들은 관할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를 이전해 들어가면 되고 입소 기간은 2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별로 출산지원시설은 29명이 이용할 수 있고 양육지원시설은 1곳당 많게는 10세대가, 적게는 5세대 등 총 3곳에서 20세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시설은 모두 32세대가 머무를 수 있어 6곳 시설에서 총 이용 가능한 인원은 29명, 52세대다.

광주 한부모가족 가구 수 9천359가구에서 모자 및 부자 가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조손가구, 청소년 모자가구, 청소년 부자가구만 해도 150여가구가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 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생활 후 자립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 등 부수적인 혜택이 제공되지만 학군, 생활권 등의 이유로 시설을 찾지 않는 가족들도 있다"며 "부자 한부모가족의 입소 신청이 있어서 수용 가능 여부를 따져 봤으나 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모자 한부모가족도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없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라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각 자치구 내 가족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돌봄,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등 상당수가 자치구 등의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변정량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팀장은 "한부모가족들은 생계유지 및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공공 및 다양한 민간기관이 협력해 한부모가족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 및 홍보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광주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광자 탄생과 유교 선현을 기리는 춘기 석전대제(釋奠大祭)가 14일 오전 남구 구동 광주향교에서 지역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고 있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회 봉행한다. /김애리기자

## “광주농협RPC 나락 저가수매...해체해야”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이하 농민회)는 14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 광산구 광주통합RPC(Rice Processing Complex·미곡종합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광주농협RPC)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나락값보다 수매가를 낮게 책정해 광주지역 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광주농협RPC의 해

체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16년 전 나락 값이 형편없던 시절 광주지역 14개 농협을 모아 광주농협RPC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모두 농민들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RPC는 농민들의 나락 값을 보장해주진 커녕 직원들 인건비, 상여금 등으로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RPC 대부분 지난해 적자를 봤으나, 광주RPC는 흑자를 봤다. 경영을 잘해서가 아닌 타 지역보다 2천~3천원 쉰 가격에 나락을 구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RPC는 당장 쌀을 수매한 농민에게 이익금을 돌려주고 예산 결산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나락 값을 보장할 수 없다면 당장 RPC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농협RPC 측은 “지난해 광주·전남을 통틀어 영광, 나주, 순천을 빼곤 광주의 나락 값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장은정기자

## “왜곡된 5·18조사위 보고서 거부...재규명 필요”

#### 오월대책위,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등 2건 지적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의 조사보고서가 왜곡된 내용으로 구성돼 재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월정신자기기법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오월대책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5·18조사위의 왜곡된 조사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대책위는 “5·18조사위는 진실 규명 활동 과정에서 광주전남공동체와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거부했다”며 “때문에 최근 공개된 보고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곡해하는 예견된 결

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오월대책위가 조사보고서 중 왜곡됐다고 지적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등 2건이다.

오월대책위는 “보고서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무기고 습격 시간이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 이전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사법적 판단과 군·경찰 자체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부대의 잔인한 학살 행위가 광주시민들의 과거 시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해 또 다른 왜곡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은 학살자를 희생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5·18의 역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오월대책위는 “조사 과정에서 누가 자의적으로 조사범위를 늘려가면서 왜곡된 결론을 의도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민변, 시민사회, 양심적 학자 등이 조사위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5·18조사위는 현 사태의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 검찰, 5·18 관련자 88명 ‘죄가 안 됨’ 처분

#### 광주지검 36명 등 정당행위 인정...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8명이 검찰로부터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5월2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총 88명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

·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검찰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죄가 안 됨’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특히 광주지검

은 이날 36명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관련자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7명은 아직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지검은 인적 사항이 파악된 36명에 대해 먼저 처분 변경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www.jesanara.com](http://www.jesanara.com)

##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